

헝가리, 수출 부진으로 경제성장률 낮아질 듯

□ 금년도 경제성장은 국내수요에 의존

- 헝가리의 금년도 2/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에 비해 다소 상승하였으나, 수출 부진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. EU의 경기상승이 동반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헝가리의 수출 회복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, 국내수요에만 의존하여 3% 이상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불확실한 상태임.
- 9월 3일 헝가리 중앙통계청이 발표한 예비자료에 따르면, 금년도 2/4분기 GDP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3.1%를 기록하였음. 이는 1/4분기의 2.9%에 비해 0.2% 포인트 상승한 것이나, 상반기 전체의 GDP 성장률 3.0%는 정부의 기대수준 3.5~4.0%에는 못 미치는 실적임. 특히, 같은 날 발표된 금년도 1~7월중 경상수지는 1억 7,300만 유로 규모의 적자를 기록함으로써 전년동기에 기록했던 9,400만 유로 규모의 흑자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음.
- 분야별로 살펴보면, 전년동기에 비해 서비스 부문은 성장한 반면 제조업 및 농업 부문의 생산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, 이는 그 동안 수출에 주로 의존해 왔던 헝가리의 경제성장이 국내수요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.

□ EU의 경기침체 여파로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

- 특히, 금년도 상반기의 경제성장은 정부의 지출 확대와 실질소득의 급격한 상승으로 서비스 부문이 활기를 띤 결과임.

- 또한, 내수 확대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는 제조업의 수출 부진 및 관광 수입(收入) 감소와 맞물려 예상보다 큰 폭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음.
- 금년도 상반기 중 산업 생산량은 전년동기에 비해 불과 1% 증가에 그쳤는데, 이 같은 제조업의 생산 부진은 주요 EU 국가들의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수요의 감소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. 여기에다 포린트貨의 강세와 실질임금의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도 수출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.
- 한편, EU 국가들의 경기침체 및 포린트貨의 강세는 관광 부문에도 악영향을 미쳐, 금년도 상반기 중 관광 부문의 순수익은 전년동기 대비 30%나 감소하였음. 헝가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나, EU로부터 온 여행자들의 체류일수 및 지출금액은 예년에 비해 뚜렷이 줄어들었음.
- EU 국가들이 현재의 경기침체에서 쉽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3/4분기 중 헝가리의 수출여건이 크게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어, 금년도 헝가리의 경제성장률은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됨.

전문연구원 오경일(☎3779-6646)

E-mail : OKI1122@koreaexim.go.kr